# 지상발명학교

⊙ 第10回 ⊙

# 아이디어창출및 발명의발상기법

## 발명에는 성의 대결 없다

① 통모양의 메리야스천을 쓴다.

② 중앙에 가위질을 한다.

③ ①과 ②를 좌우로 열어서 일직선으로 한다.

④ 앞의 천조각을 ④가 끌어 내려진다.

⑤ 재봉틀로 ①②③의 곳을 뒷쪽 ⑤에 꿰맨다.

⑥ 이렇게 하면 앞뒤의 크기가 꼭 맞아든다.

「중앙에 잘린 곳을 넣은 것뿐」

깜짝스러운 고안이다. 이것이 4천만 엔이나 벌어들인 일본 S부인의 발명이다.

S부인이 종이봉투를 써서 몇 번이고 시험하면서 터득했다고 한다. 이 방법은 또 다른 곳에 많은 용도가 있을 것 같다.

양복점을 경영한 S부인은 장난꾸러기의 아들딸이 다섯. 셔어츠는 입히자마자 더럽혀지고 팬티는 터지고 찢어졌다. 참다 못해 생각한 것이

"팬티는 솔기가 찢어지기 쉽다. 솔기 없는 무명팬티로 하면 질겨서 오래 입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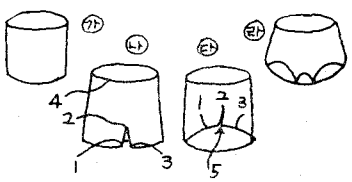
하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본 친구가

"참 좋은 팬티가 됐는데, 곧 특허를 내둬요."

서두르는 바람에 생후 처음 특허의 경험을 겪었다. 그뒤 특허가 나고도 5년이나 지난 어느 날 만딸이,

"엄마! 권리를 가지고만 있지말고 팔아보면 어때요?"

하고 권하는 바람에 L기업과 절충되어 50만 엔에 팔았다.




"아이디어는 돈과 같다."

는 것을 처음 깨닫고 모녀가 얼싸안고 기뻐했다. 이런 뒤로 팬티나 기저귀의 연구를 부지런히 했다.

타이츠의 연구는 H사에게 2년간의 사용료로 2백만 엔을 받았다. 럭키타이츠가 그것이다.

아톰타이츠는 B사가 봄동안만 30만 엔에 사 주었다.

마이크로팬티는 D사에게서 첫해에 권리금으로 130만엔과 고문사원으로 다달이 3만 엔씩 받기로 했다. 이것은 다음 해부터 선전해서 팔리기 시작해서 수 백만 엔이됐다. 그리고 유럽 여행은 여비를 D사가 대어주었다.

아이디어의 덕택으로 수 많은 명예와 돈이 굴러들어왔던 것이다.

S부인 8시의 「일요발명학교」에 「고문」으로 항상 출석하여 후배의 지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새로운 모습의 「발명부인」이다.

## 명심하라 낙제발명 조심하라

누구나 압정을 뽑을 때 손톱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리라. 그래서 뽑기 쉽게 하고자 생각한 것이 ㉮처럼 추켜든 것을 생각하여 대발명이라도 한 것 처럼 우쭐하여지기 쉽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미 50여년전에 출원되어 있는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처럼 고무판같은 것을 끼워 탄력을 더함과 함께 뽑기 쉽게 한 것도 있다. 이것도 이미 옛날에 특허되어 있다.

㉰처럼 손잡이를 만든 것 때로는 둥근 것을 꽃모양 곤충모양의 의장은 어떨까 하고 출원하는 이도 많다고 하다. 또 압정에 찔려서 혼난 사람도 많다고 보아 ㉱처럼 굴려도 결코 침이 위로 서지않는 것도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나 이 압정이라는 것이 너무 값싸기 때문에 조금만 수공을 더하면 벌써 값이 2배, 3배로 껑충 뛴다.

강 신 묵
〈새생각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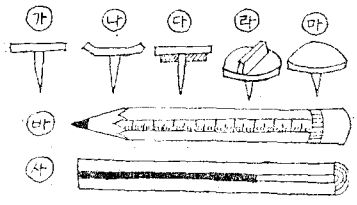
그렇게 되면 특수한 곳 말고는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들 발명이 빛을 못보는 이유다.

요사이는 플라스틱의 아름다운 압정까지 시장에 나오고 있다.

우리들에게 제일 친근한 것의 하나는 연필이다. 그러니까 연필의 발명 또한 많다. 그 속에서 가장많은 것은

"연필에 눈금을 적어 넣어 언제나 자처럼 썼으면 좋겠다."

는 발명이다. 이것도 해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곤 한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40여년 전에 특




허 된것이다. 또 하나는

"연필이 짧아지면 쓰지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3분의 1쯤 심을 안넣으면 대단히 많은 흑연이 절약된다."는 것으로 이것 역시 특허는 되고도 사업화되지 못한 까닭을 ㉱의 연필은

"대중의 「필요심리」가 일지 않기 때문이다."

㉲의 연필은,

"재료비보다 공임이 비싸게 먹힌다."

이 밖에도 연필의 축을 플라스틱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깎을 때의 감촉이 좋은 게」 그리고 「값이 싼 재료」를 찾아내야 한다.

또 축목을 쓴 간이 샤프연필을 만들어 자만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지금의 샤프연필과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볼펜의 심을 잘 이용한 취미와 장식의 필기도구를 생각하는 쪽이 훨씬 근대적이며 바람직하다.

## 전문가 앞지른 초심발명가

"광고성냥으로서 불꽃의 색이 빨강이나 자주색 등 여러 가지 색이 나면 호기심을 끄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대학 교수에게 부탁했으나 수백만원의 연구비만 썼을 뿐 허사였다."는 말을 양초회사의 B사장에게 들었다.

아울러 불꽃의 색이 별난 양초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것도 대학의 연구실에 많은 돈을 주고 부탁했으나 될 것 같지 않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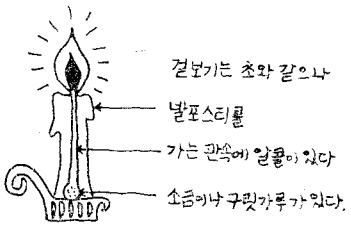
불꽃의 색을 바꾸는 것은 중학교의 화학실험에서도 초보적으로 잘 다룬다. 알콜램프의 불꽃에 소금 한 알갱이를 넣으면 불꽃색이 활짝 노랑색으로 빛난다. 구릿가루를 넣으면 아름다운 코발트색이 난다. 이것을 「염색반응」이라고 한다.

학자및 교수들은 각종 가루를 성냥의 약에 넣어 본다. 양초의 심에도 넣어 본다. 그러나 색이 변하지 않는다.

'양초나 성냥불은 온도가 낮기때문이다.'다시 학자는 낮은 온도에도 색이 변하는 광물질을 찾으나 성냥이나 양초의 불꽃 온도를 높이고자 「정공법의 연구」를 계속하기만 한다.

그런데 D발명전에 출품한 M군의 양초는 훌륭하게 자주색 불꽃을 냈다. 학자가 깜짝 놀라서 설명을 청했는데 M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알콜을 넣은 가는 관을 심으로 해서 그 둘레를 양초 모양의 발포스티롤로 쌌다. 겉보기에는 양초와




흡사하나 그 심에 소금이나 구릿가루를 넣었을 뿐이다."

학자는 외부는 바꾸지 않고 중심의 구멍에 힘을 쏟고, 초심자는 중심은 그대로 두고 바깥쪽만 바꾸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문가나 대학자가 도리어 문제해결을 못 할 때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기라면 전기의 전문가는 훨씬 깊게 파내려 가기때문에 원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암시를 얻을 기회가 매우 적다. 도리어 문외한이 대발명을 할 경우가 많다.

커다란 판유리의 제조법은 자동차왕 포드가 발명했다. 유리라면 포드에겐 완전히 전문 밖의 일이었다. 전문밖이기 때문에 가령 전기일을 할 때는 그 주변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전기의 지식만으로는 결코 아이디어가 태어나지 않는다. 전기의 전문가가 물리·화학·기계 등에도 머리를 돌려보면 거기에는 갑자기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 화학자라고 화학만 연구하면 된다고 믿고 화학만 연구하고 있다면 화학의 일대 발명은 나오지 않는다.

〈계속〉